

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

2013. 2

교육협력국 (교육격차해소과)

작성자 과명: 교육격차해소과 담당: 정명이 팀장: 홍성우 과장: 박종수 (**2** 2133-3949) (**2** 2133-3948) (**2** 2133-3935)

「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」회의록

〈회의개요〉

◆ 일 시: 2013. 2. 7(목) 14:00~16:30

◆ 장 소 : 서소문별관 13층 세미나룸B

◆ 참 석 : 총 14명(당연직 4명, 위촉직 10명)

- 교육협력국장, 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,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, 친환경유통센터장
- 시의원(이진화, 최웅식), 박혜숙, 박우형, 박영순, 박수미, 김경욱, 조남규, 배옥병, 김흥주

◆ 안 건: 2013년 친환경무상급식 기본계획

-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기본방향,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지원
- 저소득층자녀 무상급식 지원,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
-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산·공급·검사 체계 구축
- 종합적인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체계 구현

◆ 주요의견

- 조례에 의거하여 반기별로 정기회의 개최
 - ▶필요시 제적위원 1/3이상의 동의로 임시회 개최 필요
-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사전 정보 공유 필요
 - ▶사업 계획 및 예산안 확정 전에 위원회와 협의 및 사전 정보 제공 필요
 - ▶ 형식적인 심의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 중요
- 광역통합친환경급식센터의 사업계획 및 운영
 - ▶기존 급식관련 기관과의 사업 중복성 우려
 - ▶구체적인 사업계획안 부재
 - ▶급식 현장과의 체계적인 사업 네트워킹 필요

□ 위원 발언 내용

〈간 사〉

- 회의진행은 위원소개 후 심의안건으로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설명드리고,
- 다음은 광역급식센터, 유통센터에서 식재료 수급관련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.

<위원 소개>

〈부위원장〉

- 2012년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사업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
- 핵심사업인 광역센터가 설치되었고, 이 자리에 광역급식센터장을 모시게 되어 감회가 새로우며 많은 역할 기대 합니다.
- 올해 무상급식이 중학교 2학년까지이고 내년부턴 3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.
-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자유토론 시간에 좋은 의견을 제안하여 2013년도 무상급식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.
- 회의는 서울시 무상급식 기본계획 보고(심의안건), 광역급식센터 업무보고, 유통 센터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.

(000 위원)

- 광역급식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알고 있으나, 이번 회의자료에 있는 업무가 전부인지 모르겠고, '13년 급식 예산 및 계획 등에 대해 사전에 자료를 보고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.
- 짧은 시간에 내년도 사업이 모두 다루어지기는 어려우므로 앞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기능을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제공 및 공유가 필요합니다.

〈간 사〉

○ 2013년 예산편성 이전에 위원회를 개최했으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용이하셨을텐데 무상급식 단가를 포함해 서울시와 교육청의 합의가 늦게 이루어져서 예산관련 등 사업계획(안)의 상정 및 심의를 적기에 개최하기 어려웠습니다.

〈000 위원〉

○ 올해부터는 반기별로 정기회는 물론이고, 임시회나 소위원회도 개최했으면 합니다.

(000 위원)

○ 소위원회는 몇몇분들만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나머지 위원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내용조차 모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정기 위원회에서 더 많이 논의하고 토론되어 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.

(000 위원)

○ 작년에도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말씀 드렸으나,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으니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주기 원합니다.

(000 위원)

○ 교육청에서 추경을 통해 2013년 급식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나, 추경재원이 있는지 불확실합니다.

〈간 사〉

- 올해 급식단가 책정과 관련해서 시와 교육청간에 4월부터 7월까지 실무협의를 하였습니다.
- 식품비 인상액, 관리비 인상액, 처우개선비 상승분 등 많은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마쳤으나, 7월에 교육청에서 그동안 별도 편성하고 있던 조리종사자 인건비 전액을 '13년 급식단가에 포함하는 문제를 최초 제기했고, 교육청에선 교육청 부담분 50%만 인건비로 포함, 급식단가에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.
- 결국,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청과 시·자치구간 300억 정도 차이나게 편성되어 조리종사원 인건비 300억원 정도가 부족한 현실이나,
- 이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각 시·도 교육청에 배정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,000억중 서울시교육청에 약 500억원 정도가 배정될 걸로 예상됨에 따라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

〈부위원장〉

- 위원회 개최시기 및 역활에 대한 문제제기에 모든 위원님들 공감하였으며,
- 심의안건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는 업무보고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
(000 위원)

○ 회의개최 등에 대해 반기별로 개최했었어야 하나, 개최하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끼며,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1달에 한 번씩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

〈부위원장〉

○ 그럼 먼저 교육격차해소과에서 심의안건을 보고 하여 주십시오.

<교육격차해소과 심의자료 보고>

(000 위원)

- 무상급식 운영비에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?
- 이로 인해 올해 무상급식이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요?

〈간 사〉

- 매년 교육청에서 급식지침을 만들고 있으며 지침에서 급식단가를 책정합니다.
- 올해 1월 중순에 개최된 급식지침 관련 회의에서 교육청이 급식지침을 확정했는데 초 2,880원, 중 3,840원으로 급식단가를 확정했습니다. 급식하는 데는 문제 없지만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302억원이 미편성 된것입니다.

(000 위원)

- 2013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에 의하면, 교과부에서 특성화고 경쟁력 지원 강화 예산 명목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,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전출금은 하향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, 기존 편성된 전출금을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.
- 서울시에서 교육청에 전출하는 예산규모를 조정하지 않아도 인건비 부족분 302억원에 대해 중앙정부 예산도 있으니 예산확보는 문제 없을 것입니다. 추후 진행상황을 이메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.

(000 위원)

- 내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?

〈000 위원〉

- 올해 서로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
〈000 위원〉

- 주5일 근무가 실시되면서 학교에서는 연차수당을 급식비에 포함하다 보니,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보상수당을 돌려주어야 하지만,
- 인건비를 식비에 포함하여 예산편성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건비를 식비에 포함해서는 안됩니다.

(000 위원)

- 구체적인 급식단가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.

(000 위원)

- 각 학교 단위별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,
-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수합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 전체적으로 합산된 급식단가 통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

<교육격차해소과 심의자료 및 광역급식센터, 친환경유통센터 업무보고 완료>

(000 위원)

- '친환경'의 의미는 무농약, 저농약, 유기농인데 포괄적으로 친환경으로 인식 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.
- 유통센터는 비교적 사업추진과 성과에 있어 확실한 것 같으나,
- 광역센터 사업은 홍보하고 있는 부분과,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.

(000 위원)

- 유통센터는 구체적으로 사업성과가 보이는 사업들이 많다고 볼 수 있으나,
- 광역급식센터는 정책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명확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(000 위원)

- 농산물 식재료 안전성 검사 부분에 부적합이 18건 나왔는데. 처리과정을 어떻게 하는지요?

(000 위원)

- 먼저 학교배송을 금지하고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위반이 확실한 경우 납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
(000 위원)

- 수산품의 경우 방사능 국가기준치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안전치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.

(000 위원)

- 국가 기준치보다 더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.

(000 위원)

- 강사 양성대상에 식품 관련 자격증 소지자만 해당되는지요?
- 강사교육은 광역센터 전문분야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.
- 생활 강사양성 부분은 기존에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.
- 농림부의 식생활교육지원법 등의 유사분야에 강사가 많으므로 기존 배출된 강사와 결합하여 함께 추진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.

〈000 위원〉

- 식품자격자 뿐만 아니라 민간 유경험자 등을 강사로 양성하려고 합니다.
- 단위학교에서 친환경 교육을 담당 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

(000 위원)

- 광역급식센터에서 강사를 교육하여 배출하는 것은 전문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. 기존에 배출된 전문인력 풀을 구성하여 가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(000 위원)

- 식생활교육네트워크 등의 단체에서 강사로 양성된 분들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.
- 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양성강사와 함께 관심있는 분들을 교육해서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.

(000 위원)

- 식생활강사 등 기존에 있는 자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수정보완해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.

〈부위원장〉

- 더이상 의견이 없으면 폐회하겠습니다.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.